■ 민족문화연구 제93호(2021.11.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7-40.
http://doi.org/10.17948/kcs.2021..93.7

고려 초 순화(淳化)명 청자에 대한 재조명
—제작과 전개를 중심으로—

오영인(吳瑛仁)*

목 차

1. 서론
2. 순화명 청자의 범(範)과 용도
3. 992-993년 태묘 의례용 청자제기의 제작과 명문의 함의(含意)
4. 순화명 청자의 제작 중단과 전개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순화명 청자의 성격, 제작배경과 의미, 위계를 살피고, 제작이 중단된 이후 태묘 의례용 제기의 추이를 제작 및 수급방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논하였다. 중국 예서와 제기도는 고려의 제사 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988년 성종은 태묘를 5묘 체제로 삼아 992년 11월에 건립을 마무리하였다. 성종에게 태묘는 국가근본인 효가 구현되는 공간이었고, 태묘의 건립과 제사를 통해 왕위의 정통성을 공표하고자 하였다. 순화명 청자는 이러한 성종의 의지를 담아 992-993년 태묘 의례를 위해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우수한 제작공력으로 제작된 결과물이자, 『삼례도』를 견본으로 제작되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고 명문을 개체별로 표기할 만큼 규격화된 공정과 체계적인 제작방식이 적용된 대상이었다. 960년 물장성에서 개칭된 보천은 장인과 진귀품의 보관을 담당하였고, 배천 원산리 가마를 산하에 두어 필요시 장인을 차출하여 순화명 청자를 제작하였다. 993년 이후 순화명 청자의 제작을 비롯해 배천 원산리 가마 역시 운영이 중단되었다. 해당 가마의 운영 중단은 요업상 비효율과 유지의 어려움에 기인하였고, 운영을 중단한 이후 1010년 재차 발발한 거란의 침입에 따른 피해로 왕실의 지원을 받거나 인력의 확보 및 가마 구조의 전환을 통한 재건도 불가능하였다. 1011년 소실된 태묘는 1027년 수리가 마무리되어 의례가 진행되었다. 1029년 태묘 의례용 제기의 확보가 원활히 이행된 배경에는 제기도감의 관할 하에 공물의 형태로 자기제기가 수급되었기에 가능하였다. 992-993년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제작된 순화명 청자는 11세기 이후 용인 서리 및 여주 중암리 일대에서 제작된 백자제기에 태묘 의례용 제기의 역할을 위임하였고, 왕실직속 제작체제의 조달에서 공물 납부방식으로 태묘 의례용 자기제기의 제작과 수급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제어: 순화, 태묘, 의례기, 삼례도, 제기도.

1. 서론

1942년 발간된 경성미술구락부 창업20년 기념지에는 서예 액자와 수묵화 족자 그리고 그 아래에 이토 마끼오(伊藤愼雄)가 소장한 화병이 사진으로 남아있다.〈도 1〉 조선총독부에서 보물로 지정한 해당 화병은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器匠崔吉會造'의 명문이 표기된 고려청자로 전체적인 기형과 명문을 토대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순화4년명 청자호로 이해되고 있다.[1]〈도 2〉 순화4년명 청자호는 북송(北宋) 태종(太宗, 재위 976-997) 연호 '淳化'의 사용시기(990-994년)와 간지[계사]를 통해 993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에 태묘(太廟) 제1실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장인 최길회에 의해 제작된 제기였다.[2] 또한 황해도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4층에서 출

1) 小山富士夫, 「高麗陶磁序說」, 『世界陶磁全集』13, 河出書房, 1956, 220-221면.
2) 당시 제례의식에서 사용되는 기명은 향기로 불렸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례용 기명이라는 의미에서 제기로 통칭하도록 한다.(『高麗史』 卷61, 志15 禮3 吉禮大祀 別廟 別廟享 送神, "(…) 若后妃別廟, 則無功臣配享, 禮器不設, 則以常享器皿, 行之.")

토된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명 청자두형제기(靑磁豆形祭器)를 비롯한 다수의 순화명 청자편을 통해 순화4년명 청자호의 자기 종류, 제작처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3]〈도 3〉

순화3년명 청자두형제기는 992년 태묘 제4실에서의 사용을 위해 장인 왕공탁이 제작한 제기로서 상부와 중부, 하부가 별도 제작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이들 순화명 청자는 고려 초기 청자의 편년작이자 당시 왕실에서 사용된 최고급 청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북송대 『三禮圖』를 견본으로 삼은 제기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4] 현재까지 순화명 청자는 출토지와 명문을 통해 제작처 및 시기가 분명한 초기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되며 제작과 유래, 용도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왔다. 다만 순화명 청자의 제작배경, 명문 표기에 있어 시기와 지역의 편중, 명문표기의 중단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순화명 청자의 기형, 명문과 비견되는 청자는 이후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고, 이러한 정황을 다룬 논의 또한 이뤄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화명 청자의 성격을 범과 용도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명문이 표기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태묘의 건립목적과 배천 원산리 가마의 성격, 그리고 '순화'명 표기 사례에 주목하려 한다. 배천 원산리 일대 가마와 공존하거나 후행한 초기 고려자기 가마에서의 제기 제작실태 및 명문 표기 여부를 통해 제기의 제작추이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순화명 청자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순화명 청자의 제작을 이끌고 사용하였던 당시 고려 왕실의 인식과 성종(재위 981-997)이 지향했던 바를 기록과 출토자료에 근거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기 고려청자의 편년작이자 기준작으로 언급되어온 순화명 청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주목함으로써 고려 초 왕실자기로서 갖는 성격과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

3)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고고연구 해제집1(1986-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305-306면 ;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삼국-고려)』, 사회과학출판사, 1995, 111-118면.

4) 강경숙, 『韓國陶磁史』, 예경, 2012, 217면, 220면 ; 김보광,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113, 한국사학회, 2014, 52-55면 ; 김효진,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미술사학연구』 282, 한국미술사학회, 2014, 8-10면.

자사 연구에서 있어 한반도 자기의 시작을 상위계층이 향유한 음다(飮茶)문화와 연관지어온 기존 논점에서 벗어나 국가의례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왕조 통치이념을 표명하려는 고려 초 왕실의 의지가 자기 제작에 반영되었음을 밝히는 일고(一考)로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도 1〉 청자호(순화4년명)의 진열 사진
이토 마끼오(伊藤愼雄) 소장
경성미술구락부 창업20년 기념지
1942년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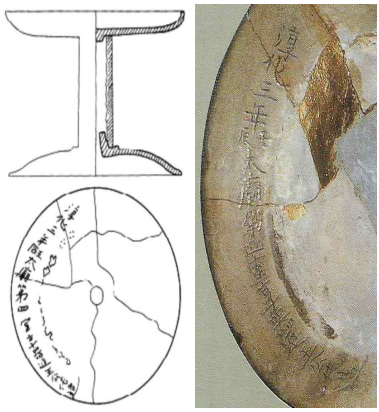


〈도 2〉 청자호, 순화4년명(993년), 보물
높이 35.2cm,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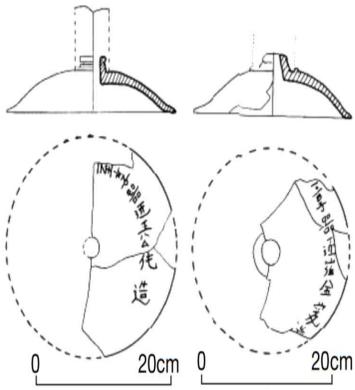
2. 순화명 청자의 범(範)과 용도

배천 원산리 2호 4차 요지 3·4번째 칸의 바닥층에서는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명 청자두형제기 외에도 '□器匠王公托造','淳化三年壬辰太廟器匠李味巨造', '匠李味巨造', '淳化三年太廟□三室享器匠沈邽', '匠沈祁造', '淳化四年□太廟第', '淳化四年已', '淳化(…)匠崔金桓造', '淳化四年', '享器匠崔金曼造' 등의 명문이 고졸한 음각선으로 표기된 청자두형제기 하부편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5]〈도 4〉 배천 원산리 가마는 3차례의 보수를 진행하며 가마의 사용범

위를 축소하였고, 발굴조사 당시 교란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층위가 노출되었다. 대략 25점에 달하는 순화명 청자두형제기는 가마의 운영시기상 하한에 해당하는 4차 가마 바닥층에서 출토되었고, 청자두형제기 하부에 명문이 음각선으로 표기된 공통점을 보였다. 이들 순화명 청자의 명문은 '시기-사용처-용도-제작자'순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992-993년 태묘의 각 실에서 사용될 기물(향기)로 여러 장인들이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6]



〈도 3〉 청자두형제기, 순화3년명(992년)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4차층 출토
구경 25cm, 높이 25.5cm, 저경 24.5cm



〈도 4〉 청자두형제기, 순화명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4차층 출토

성종은 988년 태묘를 5묘(廟) 체제로 정하고, 989년 4월 태묘 건립을 명하여 992년 건립을 마무리하였다.[7] 태묘 완공시점은『高麗史』志,『고려사』世家와『高麗史節要』에 따라 992년 11월과 12월로 나뉘지만, 992년 12월 1

5) 김영진, 앞의 책, 1995, 110-118면 ; 南秀雄,「圓山里遺跡と開城周邊の靑磁資料」,『東洋陶磁』, 東洋陶磁學會, 1992-94, 105-120면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韓國考古學全書 49 (中世編 26) 고구려와 고려 및 리조 도자기가마터와 유물』, 진인진, 2009, 104-106면.

6) 장남원,「고려시대 경기지역 窯業의 성격」,『고문화』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4, 96면.

7)『高麗史』卷3, 世家3 成宗7年(988) 12月, "是歲, 始定五廟." ;『高麗史』卷3, 世家3 成宗8年(989) 4月 15日, "乙丑 始營太廟." ;『高麗史』卷3, 世家3 成宗8年(989) 4月 23日, "癸酉 王詣大廟, 率百官輸材." ;『高麗史』卷3, 世家3 成宗11年(992) 12月, "十二月 太廟成." ;『高麗史』卷61, 志15 禮3 吉禮大祀 諸陵 成宗11年(992) 11月, "十一年十一月, 太廟成, 命儒臣, 議定昭穆位次, 及禘祫儀, 遂行祫禮."

일 종묘제례의 절차를 정하는 교서를 내리고 12월 태묘에서 제례[祫祭]가 진행된 점에서 태묘의 완공은 11월에 이뤄져 12월 의례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8] 자연히 순화명 청자제기는 태묘가 낙성되고 첫 의례가 진행된 992년 12월과 이듬해에 사용될 것을 염두하여 각각 제작되었을 것이다.[9] 992년과 993년 제작시기가 명확한 이들 청자두형제기는 태묘 3실인 정종의 묘당(廟堂)과 태묘 4실인 광종의 묘당에서의 사용을 염두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상부-중부-하부가 개별 제작・조립되는 방식이었으며, 제작자(王公托, 李味巨, 沈邽, 崔金桓, 崔金曼)를 명문으로 표기하였을 만큼 태묘가 설립된 당시부터 이듬해까지 규격화된 공정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제작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입증해주었다.

순화명 청자호는 명문 내용으로 보아 배천 원산리 일대에서 순화명 청자두형제기와 함께 제작되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까지 배천 원산리 2호 가마를 비롯한 생산유적에서 이에 비견되는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제외하면 전세품으로도 알려진 바 없어 제작수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993년에 제작된 순화명 청자호는 992년부터 제작된 청자두형제기와 제작시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청자두형제기와 달리 태묘 1실인 태조 왕건의 묘당에 사용된 예로 유일하다. 순화명 청자두형제기의 장인으로 반복하여 명시된 '王公托, 李味巨, 沈

8)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11年(992) 12月 1日, "(…) 朕以謬傳神器, 添屬孫謀, 爰自前年, 新營太廟. 在朝儒臣等, 其議定昭穆位次, 禘祫儀禮, 以聞.";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11年(992) 12月, "是月, 親祫于大廟." ; 『高麗史節要』 卷2 成宗11年(992) 12月, "十二月. 大廟成. 令在朝儒臣等, 議定昭穆位次, 禘祫儀禮以聞."; 김아네스, 「고려 전기 태묘의 禘祫 親享과 그 의미」,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24면; 이미지, 「북한 로동신문에 보도된 고려시대 관련 기사의 현황과 주요 내용」, 『역사와 실학』 70, 역사실학회, 2019, 142-143면; 조욱진, 「고려전기 태묘의 구성과 묘제의 변화」,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21, 9-10면; 한정수, 「고려시대 태조 추모의의 양상과 숭배」,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16면.

9) 기록에 따르면 992년 12월에 진행된 태묘 의례 이후, 994년 4월 23일이 되어서야 다시 태묘 의례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高麗史』 卷3, 世家3 成宗13年(994) 4月 23日) 기록의 누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긴 하나, 표기된 순화4년을 태묘 의례가 진행된 시점으로 단정하는 대신 태묘에 상납된 시기를 의미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문과 의례절차의 연장선에서 추후 축적될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논지가 제시되리라 기대한다.

邦, 崔金桓, 崔金曼'에 언급되지 않은 인물인 '崔吉會'가 순화명 청자호의 장인으로 표기된 사항도 흥미롭다. 이처럼 993년 순화명 청자호가 앞서 청자두형제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제작되었던 점과 관련하여 동년 3월 7일 혜종・정종・광종・경종의 신주를 하나의 묘당에 봉안토록 한 성종의 교서 내용은 새로운 제기 제작에 어떠한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추정을 조심스레 하게 한다.[10]

983년 박사(博士) 임로성(任老成)은 송으로부터 「太廟堂圖」, 『太廟堂記』, 「社稷堂圖」, 『社稷堂記』, 『文宣王廟圖』, 『祭器圖』, 『七十二賢贊記』를 가져와 고려 왕실에 바쳤다.[11] 임로성이 가지고 온 그림과 서적들은 고려에서 유교적인 교육 및 제사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 당시 받아들인 예제(禮制)는 당제(唐祭)를 기반으로 한 『大唐開元禮』와 흡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2] 실제로 『대당개원례』의 체향(禘享)과 협향(祫享) 사료에 기술된 준이(尊彝), 계이(鷄彝), 조이(鳥彝), 사준(犧尊), 상준(象尊), 착준(著尊), 산뢰(山罍), 호준(壺尊), 태준(太尊)의 진설방식은 『고려사』 禮志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13] 제기 역시 983년 유입된 『제기도』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순화명 청자는 962년 북송 경학자 섭숭의(聶崇義)에 의해 편찬된 『삼례도』의 태준, 두와 기형상 일치하였다.[14]〈도 5-6〉

태묘 체협 친향, 협향에서 순화명 청자호는 당(堂) 아래 2점이 놓이고, 명수(明水), 침제(沉齊)가 각각 담긴 태준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당 위에 올리는

---

10)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12年(993) 3月 7日, "(…) 兄弟一行, 禮文斯在, 宜奉惠・定・光・景四主, 通爲一廟."

11)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2年(983) 5月 9日, "博士任老成至自宋, 獻太廟堂圖一鋪, 幷記一卷, 社稷堂圖一鋪, 幷記一卷, 文宣王廟圖一鋪, 祭器圖一卷, 七十二賢贊記一卷."

12) 김아네스, 앞의 글, 23-24면; 김우성, 「고려 전기 태묘 제례의 주기진설과 제주사용」,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2017, 16면; 조욱진, 앞의 글, 9면; 현종민, 「고려 전기 태묘와 그 정치적 의미」,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20, 6면.

13) 『大唐開元禮』 卷39 皇帝祫享於太廟, "設尊彝之位於廟堂上下每座 舉彝一黃彝一犧尊二象尊二著尊二山罍二在堂上其壺尊二太尊二山罍四皆在於堂下." ; 김우성, 같은 글, 21면.

14) 『續資治通鑑長編』 卷2 太祖 乾隆2年(961) 5月 乙丑, "初 周世宗命國子司業·兼太常博士洛陽聶崇義崇義初見顯德四年 詳定郊廟器玉 崇義因取三禮舊圖 考正同異 別為新圖二十卷 丙寅來上 詔加褒賞 仍命太子詹事汝陰尹拙集儒臣參." ; 김우성, 앞의 글, 18면 ; 김효진, 앞의 글, 2014, 8-9면.

유이(蜼彝)는 명수, 호이(虎彝)는 울창주(鬱鬯)를 담고, 희준(犧尊)에는 명수와 범제(泛齊), 상준에는 명수와 예제(醴齊), 착준에는 명수와 앙제(盎齊), 산뢰에는 현주(玄酒)와 청주(淸酒)를 담았다. 당 아래 태준과 함께 진설된 호준에 명수와 제제(醍齊), 산뢰에 실주(實酒), 사주(事酒), 석주(昔酒)가 담겨 사용되었다.[15] 1175년 『삼례도』가 신찬된 『新定三禮圖』에 따르면, 태준은 용량이 5두(약 90ℓ)에 이르고, 제향[追享·朝享·朝踐]을 진행할 때 2개의 태준에 현주와 예제가 각각 채워져 사용되었다. 태준은 태고(太古)의 준으로 우(虞)나라 순임금의 준으로 일컬어졌고, 구경 1척 2촌(37.4㎝), 저경 8촌(29.6㎝), 복경 1척 5푼(31.65㎝)에 이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16] 순화명 청자호는 도해된 태준과 기형상 일치하나, 높이 35.2㎝, 구경 20㎝, 저경 16.8㎝로 『신정삼례도』의 태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에 해당하였다.



〈도 5〉 『삼례도』의 두·청자두형제기(순화3년명)



〈도 6〉 『삼례도』의 태준·청자호(순화4년명)

순화명 청자두형제기는 태묘의 각실 출입문[戶] 안쪽 신좌(神座) 앞에 보(簠)·궤(簋)·변(籩)·등(甑)·형(鉶)·옥작(玉爵)과 함께 진설되었다. 또한 찬만(饌幔)에서 모혈(毛血)과 간료(肝膋)를 담아둔 상태로 두었다가 제사 지낼 때 신위에 보, 궤, 변, 조, 목작(木爵), 호준, 축점(祝坫)과 함께 올려 사용되었

15) 『高麗史』 卷60, 至14 禮2 太廟 禘祫親享儀, "蜼彝實明水 虎彝實鬱鬯犧尊二一實明水一實泛齊 象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 著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 山罍二一實玄酒一實淸酒 堂下壺尊二一實明水一實醍齊 太尊二一實明水一實沉齊 山罍四二實酒一實事酒一實昔酒 祫享尊彝亦同."

16) 『新定三禮圖』 卷13 「鼎俎圖」, "太尊受五斗 周禮司尊彝云 追享朝享其朝踐用兩太尊一盛玄酒一盛醴齊 王用玉爵酌醴齊獻尸注云太尊太古之瓦尊也 明堂位曰泰有虞氏之尊也 今以黍寸之尺計之口圓徑一尺二寸底徑八寸腹上下空徑一尺五分 (…)"

다.[17] 『신정삼례도』에서 두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높이는 1척(약 30㎝), 상부 직경은 1척 2촌(37.4㎝), 용량은 4승(약 7.2ℓ)으로 덮개가 있고 각종 젓갈류, 침채류를 담았다.[18] 두의 옛 그림[舊圖]에는 높이가 1척 2촌(37.4㎝)이고, 동체 외면에 붉은 색 옻칠을 하고 구연부와 저부를 장식하며 사용자가 대부(大夫), 제후, 천자에 따라 운기(雲氣), 코끼리, 옥으로 각각 장식하였던 것으로 기술되었다.[19] 순화명 청자두형제기 중에서 완형인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명 청자두형제기는 대략 높이 25㎝, 구경 25.5㎝, 저경 24.5㎝로 순화명 청자호의 경우처럼 『신정삼례도』에 기술된 두에 비해 작고, 재질과 문양 여부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20]

1092년 여대림(呂大臨)의 『考古圖』에는 30여 가문이 소장한 237기의 삼대(三代) 제기와 한대 동기가 기술되어 당시 북송인들이 옛 청동제기와 같은 고동기를 오래전부터 소장품의 대상이자 모방할 견본 대상으로 인식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북송 휘종(徽宗, 재위 1100-1125)은 1107년 상서성에 의례국(議禮局)을 설치하여 전국각지의 고동기를 수집하였고, 『고고도』를 참고하여 『宣和博古圖』를 1107년 초판・1123년 개수하였다. 또한 수집품과 『삼례도』를 바탕으로 1113년 『政和五禮新儀』를 완성하였다.[21] 즉, 중국 선사시대부터 조상 숭배의 전통에 기인하여 제작되어온 제기는 시대별 양식은 변하지만 형

17) 『高麗史』 卷61, 志15 禮3 吉禮大祀 太廟 有司攝事, "(…) 太廟令, 帥其屬, 設籩豆簠簋之位於室戶內神座前. 每室, 籩十二在左, 爲二行右上, 豆十二在右, 爲二行左上. 俎二, 一在籩南, 一在籩豆之間. 簠簋各四, 在籩豆間, 簋居前, 簠次之. 甒罍各六, 在籩豆間, 甒居前, 罍次之. 玉爵六, 在籩豆南. (…) 又饌幔內, 每位, 各設毛血豆·肝膋豆·蕭籩·稷黍籩各一, 飯簋·羹罍·肉盤各一. 第一位, 又設俎一. 毛血肝膋之豆, (…) 設祭器, 每位, 左二籩, 右二豆, 俎一在神座前, 木爵一次之, 簠二簋二, 在籩豆之間, 簠在左, 簋在右. 壺尊二, 設於神座之左, 加勺冪, 設祝坫於神座之右. (…)"

18) 『新定三禮圖』 卷13 「鼎俎圖」, "臣崇義案考工記, 旅人爲豆, 高一尺(…)豆, 以木爲之, 受四升. 口圓 徑尺二寸. 有蓋, 盛昌本 脾析 豚拍之齋醢 贏兔雁之醢 韭菁芹笋之菹 麋臡鹿臡之屬."

19) 『新定三禮圖』 卷13 「鼎俎圖」, "舊圖云, 豆高尺二寸, 漆赤中. 大夫以象繪赤雲氣, 諸侯飾以象, 天子加玉飾. 皆謂飾口 足也."

20) 『삼례도』의 제기와 순화명 청자의 제원(諸元) 차는 있지만, 비율이 유사한 점에서 도공들이 수축률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정확한 공정으로 제작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효진, 앞의 글, 2014, 20면 (각주 27).

21) 중국 송대 예제 정비와 관련한 연구로 張文昌, 「宋代國家禮典之修撰」, 『制禮以教天下: 唐宋禮書與國家社會』,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2; 陳芳妹, 「宋古器物學的興起與宋仿古銅器」, 『美術史研究集刊』 10, 國立臺灣大學藝術史研究所, 2001 참조.

식적인 전통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22] 이는 고풍에 대한 애호, 고동기 수집 및 방제 열풍과 맞물려 동기제기 제작에 중점을 두는 배경이 되었고, 실제로 북송대 자기제기의 제작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 초 각종 그림과 서적으로 전해진 중국 예서와 제기도는 고려시대 제기 제작에 견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 응용에 있어 고려인들의 주관과 선택에 따라 자기제기의 제작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순화명 청자는 태준, 두의 기종으로 제작되었으나 함께 진설되었을 유이, 호이, 희준, 상준, 착준, 호준, 산뢰, 보, 궤, 변, 등, 형으로는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술할 배천 원산리 가마와 동시기에 운영된 자기가마(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중덕마을)에서 보다 다양한 제기가 제작되었음에도 태묘 의례용 제기의 종류를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다. 이는 현전 유물과 기록을 토대로 봉헌물의 종류 및 내용에 맞춰 제기의 제재(製材)가 결정되고, 일부 기종에 한하여 자기제기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3]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조선 왕실은 제기의 형태와 사용에 있어 규범에 따르도록 하였고, 사용처와 제작연도를 제기에 별도 표시하고 사용연한을 재질별로 정하여 기한 내에 손상되면 해당 관원을 문책하였다.[24] 이처럼 제기의 제작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 조선시대에도 재정과 여건에 따라 제기의 재질은 금속기뿐만 아니라 자기, 목기, 유기(鍮器)로도 제작・병용되고 있었다.[25]

---

22) 하은미, 「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硏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16-19면 ; 한정희 외, 『동양미술사』, 미진사, 2007, 34-35면.

23) 장남원, 앞의 글, 2004, 97면.

24) 『成宗實錄』 卷249, 成宗22年(1491) 1月 8日, "(…) 改造銀爵, 雖曰功重, 然今當一新制作之時, 知其不合禮文而仍舊可乎? 改造餘爵, 果如所啓. 壺尊, 今所用者數少, 而功臣則數多, 《通典》所載是, 而《儀》註所記非也, 今依《通典》, 每位各設可也. 山尊亦依禮文, 以山疊改造." ; 『正祖實錄』 卷34, 正祖16年(1792) 3月 1日, "命各陵 園 墓祭器, 刻標陵號一字及造成年條, 又定年限, 木器三年, 鍮器十年, 鐵器五年, 限內有傷, 則該官員論罪, 俾各恪謹典守."

25) 『世宗實錄』 卷3 世宗1年(1419) 4月 13日, "(…) 瓷器易破, 遠輸甚難, 不如銅器之牢緻. 宜買商倭銅鑞鐵鑄之 (…)" ; 『世宗實錄』 卷22, 世宗5年(1423) 10月 27日, "(…) 今奉常寺所造圓壇祭器內, 簠簋 大尊 象尊 壺尊, 著尊 犧尊 山罍 罍洗 香爐用磁器, 燭臺 禪勺用白木, 竝依體制製造. (…)" ; 『宣祖實錄』 卷136, 宣祖34年(1601) 4月 17日, "祭器都監啓曰: "廟社各陵, 各樣祭器儀物造成事啓下, 故所入鑄鐵等物, 大概數萬斤, 可以成形, 而當此物力薄竭之時, 辦出無路. 依魂殿祭器例, 爵簠簋龍勺等四物磨鍊, 則該用鑄鐵, 當至三

즉, 순화명 청자의 한정된 기종은 같은 맥락에서 평가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순화3년명 청자두형제기는 992년 12월 태묘에서의 첫 의례에 사용되었고, 순화4년명 청자[두・태준]는 제작된 993년이 아닌 이듬해 994년 4월 태묘 의례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은 993년 3월 혜종・정종・광종・경종의 신주를 태묘에 모셔야 한다는 교서를 내렸다.[26] 교서의 효력에 따라 바로 이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로부터 1년여 기간이 지나서야 이행되었다.[27] 당시 고려는 거란의 침입이 감지된 993년 5월부터 994년 2월 거란의 연호를 처음 사용하기까지 거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의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28] 자연히 태묘 의례는 안정기에 접어든 994년이 되어서야 재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태묘 의례용 제기로 사용된 순화명 청자는 그 견본을 북송『삼례도』에서 찾을 수 있었고 의례 순서와 용례 또한 중국의 예제를 따르고 있었다.[29] 이는 986년 학교 건립의 목적이 '공자의 학풍을 일으켜 유학을 숭상하고 요순(堯舜)의 치세를 이루고자 함'이라 공표하며 인재양성에 힘쓴 성종이 989년부터 태묘를 설치하고 992년 첫 의례를 진행하도록 주관했다는 점에서 태묘 의례용 제기의 제작배경과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30]

千餘斤, 而亦難卒備. 爵及罍勺, 爲先造成, 簠簋, 隨鑄鐵所得多寡, 漸次措備, 其餘則姑以沙器燔造爲當. (…)"

26)『高麗史』卷3, 世家3 成宗12年(993) 3月 7日, "(…) 兄弟一行, 禮文斯在, 宜奉惠・定・光・景四主, 通爲一廟."

27)『高麗史』卷3, 世家3 成宗13年(994) 4月 23日, "夏四月 甲辰 禘于太廟, 躋戴宗于第五室. (…)";『高麗史』卷61, 志15 禮3 吉禮大祀 諸陵, "十三年四月, 親禘, 祔太祖, 惠·定·光·戴·景宗于廟, 各以功臣, 配享."

28)『高麗史』卷3 世家3 成宗12年(993) 5月, "夏五月 西北界女眞報, 契丹謀擧兵來侵, 朝議謂其紿我, 不以爲備.";『高麗史』卷3 世家3 成宗12年(993) 8月, "是月, 女眞復報契丹兵至, 始知事急, 分遣諸道兵馬齊正使.";『高麗史』卷3 世家3 成宗12年(993) 10月, "冬十月 以侍中朴良柔爲上軍使, 內史侍郎徐熙爲中軍使, 門下侍郎崔亮爲下軍使, 軍于北界, 以禦契丹.";『高麗史』卷3 世家3 成宗12年(993) 閏10月 3日, "(…) 遣徐熙請和, 遜寧罷兵.";『高麗史』卷3 世家3 成宗13年(994) 2月, "始行契丹統和年號."

29) 김보광, 「고려전기 閣門의 역할과 국가의례상 의미」,『동방학지』18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9, 52-54면.

30)『高麗史』卷74, 志28 選擧2 學校, "朕素慚薄德, 尙切崇儒, 欲興周孔之風, 冀致唐虞之理. 庠序以養之, 科目以取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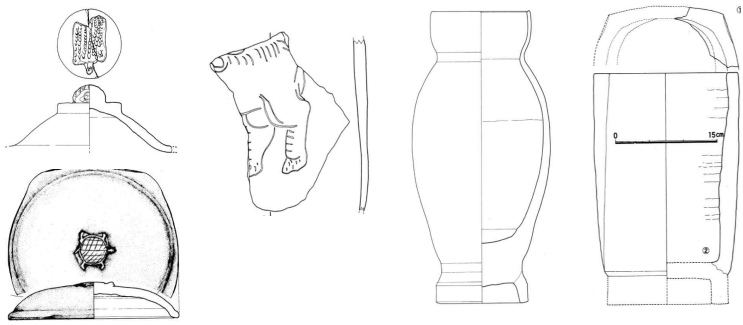
3. 992-993년 태묘 의례용 청자제기의 제작과 명문의 함의(含意)

고려 초 중서부일대 자기요지의 상대편년은 가마구조, 축요재(築窯材), 출토품 등의 비교를 통해 추정할 수 있었다. 그 중 순화명 청자가 출토된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4층은 용인 서리 중덕마을 요지의 폐기물퇴적층 중 2-3층, 시흥 방산동 요지 3층, 여주 중암리 요지 4-5층과 시기상 겹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1] 용인 서리 중덕마을 요지 폐기물퇴적층 2-3층에서 제기는 청자 및 백자로 모두 출토되었다. 청자는 2층에 한해 총 6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제기의 종류는 뚜껑, 두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백자는 3층에서 90여점이 확인되었고, 제기의 종류 또한 보, 궤, 뚜껑, 변, 상준, 호준으로 다양하였다.[32]〈도 7〉 용인 서리 중덕마을 요지에서는 배천 원산리 요지에 비해 월등히 다양하고 많은 제기가 제작되었으나, 순화명 청자인 태준, 두의 기종이 드물고 발, 완, 호, 뚜껑, 장고, 합신, 병의 내저면 혹은 일부 외저면에 仁, 大, 宇(全?) 등의 문자, 기호가 음각선으로 표기되어 순화명 청자에 비견되는 명문 역시 전무하였다.[33]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는 태준으로 추정되는 청자대호를 비롯해 청자 보, 궤, 두가 출토되는 등 배천 원산리 요지에 비해 제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삼례도』 제기도에 부합하는 제기가 제작되었다.[34] 명문이 표기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청자접시 외저면 혹은 갑발 저면에 '一, 二, 十, 村, 甲戌(추정), 奉化(추정) 吳越(추정), 持(추정), 木, 才, 京, 至'명이 음각선으로 표기되었다.[35] 이들 명문은 시기, 제작처,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일 문자 혹은 기호를 반복적으로 연습한 흔적도 보여 배천 원산리 요지의 경우

31) 김효진, 앞의 글, 2014, 26-27면.
32) 호암미술관, 『龍仁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Ⅰ』, 호암미술관, 1987, 271면, 291-292면, 294 -299면 ; 同著, 『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報告書Ⅱ』, 호암미술관, 2003, 86-87면, 127-128면, 140-141면, 145면, 226면, 233면, 235면, 239면, 246면.
33) 호암미술관, 같은 책, 1987, 288면, 321면 ; 同著, 같은 책, 2003, 177-178면.
34) 해강도자미술관, 『방산대요』, 경기도 시흥시・해강도자미술관, 2001, 113면, 205-206면, 208면, 211면.
35) 같은 책, 164면, 224-225면.

와 구분된다. 여주 중암리 요지는 배천 원산리 요지와 시기상 겹치는 4-5층에서 제기가 출토된 사례가 없고, 후행한 층위(1층)에서 백자보(추정)와 뚜껑이 출토되어 배천 원산리 요지보다 늦은 시기에 백자제기의 제작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6]



〈도 7〉 청자・백자뚜껑, 청자상준, 백자호준, 백자보
용인 서리 중덕마을 요지 출토, 호암미술관 발굴

중서부 일대 외에도 고창 반암리 요지는 용인 서리 및 여주 중암리 요지와 동일하게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축요법을 변화시킨 가마로 출토층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태준으로 보이는 청자편이 출토되었다.[37]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 요지 기준층 3층에서도 궤로 추정되는 청자사각병편이 출토되었다.[38] 남서부 일대에 위치한 이들 초기 자기가마에서도 제기가 제작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순화명 청자에 비견되는 명문 표기 사례는 전무하였다. 한편, 용인 서리 중덕마을과 인접한 용인 서리 상반마을 고려백자 요지는 배천 원산리 요지를 후행한 11세기에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요지에서는 청자 궤 1점을 비롯해 총 104점에 달하는 백자제기가 다양한 기종(보, 궤, 착준,

36) 경기도박물관 외,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경기도박물관・여주군, 2004, 126-127면, 256면, 258면.
37) 조선문화유산연구원,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집』,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1, 18면.
38) 국립전주박물관 외, 『진안 도통리 중평 초기청자요지Ⅲ』, 국립전주박물관・군산대 박물관・진안군, 2019, 139-140면, 143면.

호준, 두, 헌준, 뚜껑)으로 출토되었다.[39]〈도 8〉 순화명 청자의 시기, 사용처, 용도, 제작자를 뜻하는 명문과 확연히 다른 '大, 子, 丑午(?), 天, 崔(?)'명이 확인되었고, 명문이 표기된 기종 또한 제기가 아닌 대발, 호, 뚜껑에 해당하였다.[40]

이처럼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제작된 순화명 청자는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비견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당시 고려에서 제기는 국가 제사인 '大祀'(원구, 방택, 태묘), '中祀'(적전, 선잠), '小祀'(풍사, 우사, 문선왕묘)를 비롯해 '雜祀'(팔관회, 연등회, 초, 명산대천(산천제)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1] 제기의 사용범위와 표기된 명문 내용을 고려한다면, 태묘 의례용 자기제기의 제작은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전담하였고, 당시 그 밖의 가마에서는 태묘가 아닌 의례공간을 위해 자기제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순화명 청자호는 현 개성 일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반면, 수원 고읍성 유적, 화성 화산동 유적 등 고려 왕실 및 태묘와 관련이 적은 관청, 생활 유적에서 용인 서리 중덕마을 요지 출토예와 흡사한 백자궤가 일부 출토된 정황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42]

---

39) 경기문화재연구원, 『龍仁西里上盤高麗白磁窯址』, 경기문화재연구원・용인시・용인문화원, 2016, 190 -193면, 223면, 283-296면 ; 김효진, 앞의 글, 2014, 11-16면.
40) 경기문화재연구원, 같은 책, 304-305면.
41) 김효진, 앞의 글, 2014, 7-8면.
42) 경기문화재연구원, 『華城 花山洞 遺蹟(본문2)』,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270면, 272면 ; 김효진, 「龍仁 西里 窯址 出土 高麗白磁 祭器 硏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0, 28-30면 ; 한신대 박물관, 『水原 古邑城』, 한신대 박물관, 2000, 64-65면, 207면.



〈도 8〉 백자제기(보, 궤, 뚜껑), 용인 서리 상반마을 요지 출토, 호암미술관 발굴

개경 궁성 남동편에 자리한 태묘에서 사용될 기명은 개경 근거리에서 수급 받는 것이 이상적이었을 것이다.[43] 배천 원산리 일대는 개경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도기가마가 운영되고 있었기에 가마 운영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44] 배천 원산리 가마는 정종(재위 945-949, 949년卒)과 문공왕후(文恭王后, 생몰년 미상)의 무덤인 안릉(安陵), 태조의 조모인 원창왕후(元昌王后, 생몰년 미상)의 무덤으로 알려진 온혜릉(溫鞋陵)에 부장된 청자의 제작처로 고려되는 점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왕실용 자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45] 성종연간(981-997) 경외(京外)를 막론하고 장인들의 인적 관리를 위해 공장안(工匠案)이 작성되었고, 장인들의 활동을 관할해왔을 기존 향호들은 983년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향리직으로 격하되었다.[46] 더욱이 배천 일대는 여러 귀화인들이

43) 이민정, 「高麗 初期 太廟 祭禮服飾 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22-23면.
44) 김영진, 『도자기 가마터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2, 80면, 305면.
45) 오영인, 「高麗 塼築窯 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9, 92-94면 ; 이종민, 「나말여초 청자요업의 개시 여건과 고고학적 산물의 검토—塼築窯와 出土品을 중심으로」, 『한국중세고고학』 1, 한국중세고고학회, 2017, 72면 ; 同著, 「韓國 初期靑磁 生産窯址의 分布와 性格」, 『역사와 담론』 63, 호서사학회, 2012, 166-167면.
46)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2年(983) 2月 1日, "二月 戊子 始置十二牧, (…)" ; 김봉두, 「고려 성종대 政治支配勢力의 지방통치에 대한 認識과 지방통제책」, 『전통문화연구』 5, 조선대 전통문화연구소,

터전을 잡았던 지역으로 주목된다. 발해국 대광현(大光顯)이 934년 수만명을 이끌고 투항하여 배천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 979년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손자인 조지린(趙之遴, 미상-1011)이 난을 피해 배천 도태리에 정착하여 이후 목종연간(997-1009) 때 이부시랑(吏部侍郎) 등을 역임하였다.[47] 즉, 배천 일대는 개경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 가마의 운영과 실무에 있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왕실의 의도가 자기 제작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순화'명이 표기된 예는 청자제기 외에도 인천 문학산 제사유적에서 출토된 '淳化元年'명 암키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소재 '순화2년'명 삼층석탑, 안성 매산리사지의 '永泰二年'명 탑지석이 있다.[48] '순화원년'명 암키와는 '淳化元年七月日官'명에서 알 수 있듯이, 990년 7월 관청에서 제작을 주관하거나 관청으로 수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인근 문학산성의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49] '순화2년'명 삼층석탑은 "淳化二年歲次辛卯二月日爲國發願造塔記時戶長見鄕長見眞長信元長潤別長斤久長 (…)"의 명문을 통해 991년 한산지방의 호족이 나라의 수호를 발원하기 위해 세운 탑임을 알 수 있다. '영태2년'명 탑지석은 아랫면에 표기된 "自雁塔始成永泰二年丙午到更治今年淳化四年癸巳正月八日竝得二百二十八年前始成 (…)"을 통해 766년에 만들어져 993년에

1997, 62-63면 ; 홍대한, 「고려시대 공장(工匠) 운영과 성격 고찰-조탑 공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3-1,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218-219면 ; 홍영의, 「고려 금속제 佛具類 銘文에 보이는 京·外 匠人의 제작활동」, 『한국중세사연구』 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275면, 279면.

47)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17年(934) 7月, "秋七月 渤海國世子大光顯率衆數萬來投, 賜姓名王繼, 附之宗籍. 特授元甫, 守白州, 以奉其祀. 賜僚佐爵, 軍士田宅, 有差." ; 『白川趙氏世譜』 5面, "(…) 鼻祖諱之遴 卽宋藝祖長子魏王德昭之子遭亂避□浮海出東居于銀川縣都台里仍入仕麗朝考諸前朝史臣之論參以先生手筆之跡系沁官爵生卒年代 (…)" ; 『世宗實錄』 卷152, 地理志 黃海道 沿岸 都護府 白川郡, "(…) 新羅改名雉澤, 爲海皐郡領縣, 高麗初, 稱白州. (…)"

48)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경기도박물관, 1999, 391-392면 ; 문화재청 외,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2014上』,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362-364면 ; 한국고고인류연구소, 『인천 문학산 제사유적』, 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광역시 남구, 2018, 29면, 40면.

49) 차순철, 「「官」字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경주문화연구』 5,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2002, 124-129면.

수리되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처럼 당시 왕실 의례와 무관한 공간에서도 '순화'명이 폭넓게 사용되었고, 이러한 여건에서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제작된 청자제기에는 규격화된 명문이 개체별로 각각 표기되었던 반면, 동시기 다른 가마에서 제작된 자기제기에는 명문의 표기 사례가 전무하였다.[50]

순화명 청자의 규격화된 명문과 함께 왕씨 성이 배천군의 토성(土姓)이 아니라는 점은 단일 관청소속 공장이 여러 작업장에서 활동한 사례로 이해되거나 기술을 가진 외래인, 제기도감 소속 관원 혹은 도공으로 보게 한다.[51] 960년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명문, 1031년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址記』를 비롯해 금석문 및 묘비명, 연호명 기와 등을 토대로 문종연간(재위 1046-1083)에 이르러서야 성씨 관념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52] 즉, 순화명 청자제기에 성씨(王, 李, 沈, 崔)가 모두 표기되었던 사실은 이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왕씨는 태조가 지방 세력가와 귀화인에게 사성(賜姓)한 경우가 많았고, 이씨는 태조가 사성한 경우와 함께 본관이 연안, 태원, 고성인 경우 고려 초에 귀화한 중국계 성씨인 것으로 확인된다.[53] 성씨 관념이 자리 잡기 이전, 태묘 의례용 청자제기 제작 장인이 성씨를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귀화인이거나 귀화인의 후손일 가능성, 제작물의 사용공간이 태묘였다는 점에서 장인의 위계 또한 차별화를 염두하여 사성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

50) 고려 초 시기-사용처(납품처)-용도-제작자를 명시한 대표적인 예로 안성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982년 편년의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竹州瓦草匠水烏水院矣'명 기와를 들 수 있다.(경기도박물관, 『奉業寺』, 경기도박물관・안성시, 2003, 162면, 186면)

51) 서성호, 『高麗前期 手工業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15면 ; 이종민, 「南部地域 初期靑磁와 系統과 特徵」,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37면 ; 장남원, 앞의 글, 2004, 97면.

52) 장남원, 앞의 글, 2004, 98면. 당시 장인 이름에 성씨를 칭하는 사례가 드문 점을 두고 순화명 청자가 태묘의 첫 의례를 위한 헌기 제작임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성씨를 칭하였다고 보기도 한다.(문화재청, 『문화재대관 보물 토기・도자기』, 문화재청, 2015, 48면) 그러나 상한시기가 10세기인 용인 유운리 유적에서도 '大匠金順造'명 기와에서 장인명으로 성씨가 표기되어 이러한 추정에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기호문화재연구원, 『龍仁 前堡里・留雲里 遺蹟』,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원색사진vi)

53) 김창겸, 「高麗 太祖代 姓貫 賜與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3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50-53면 ; 이찬욱, 「韓國의 歸化姓氏와 多文化」, 『다문화콘텐츠연구』 17,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4, 262면 (각주 7).

한편, '大匠'이나 '副匠' 등 직명이 이름 앞에 표시된 경우 관장(官匠), '匠'이나 '匠人', 이름만을 밝힌 경우 사장(私匠)을 뜻한다고 보기도 한다.[54] 순화명 청자에 표기된 장인의 인원수를 두고 『分廚院報謄』의 자기 제작공정별 인원과 비교하여 제작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55] 이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순화명 청자를 제작한 장인은 왕실 및 관청 소속이 아니며, 배천 원산리 일대에서 청자제기 제작을 위해 무소속 사장으로 대거 참여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1076년에 작성된 『고려사』「식화지」〈諸衙門工匠別賜〉는 아문(衙門) 소속 공장(工匠)에 대한 별사(別賜)에 대한 내용으로 300일 이상 역(役)을 진 사람에게 녹봉이 주어지며, 자기를 제작한 장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56] 조선시대 사옹원 관리가 결빙기를 제외한 봄부터 가을까지 사옹원 분원에 상주한 사실은 고려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57] 즉,

54) 홍영의, 앞의 글, 2016, 278면.
55) 김영진, 앞의 책, 1995, 117-118면.
56) 『高麗史』 卷80, 志34 食貨3 祿俸 諸衙門工匠別賜, "諸衙門工匠別賜. 並以役三百日以上者. 文宗三十年定. (…)"

〈별표 1〉〈諸衙門工匠別賜〉의 아문별 공장 및 총 인원

아문	공장(명)	아문	공장(명)
군기감	皮甲匠, 牟匠, 和匠, 白甲匠, 長刀匠, 角弓匠, 漆匠, 鍊匠, 弩筒匠, 旗畫業, 箭匠, 箭頭匠, 皮匠, 行首大匠 (23)	상의국	繡匠, 幞頭匠, 靴匠, 帶匠, 花匠, 靸鞋匠, 笏袋大匠 (11)
		잡직서	罽匠, 繡匠 (4)
중상서	畫業, 小木匠, 行首校尉, 韋匠, 紅鞓匠, 朱紅匠, 雕刻匠, 螺鈿匠, 漆匠, 花匠, 紙匠, 珠簾匠, 竹篠匠, 御盖匠, 黃丹匠, 梳匠, 磨匠 (19)	상승국	大鞾匠, 鞍轡匠, 鞍褥匠, 鞍鞽匠, 馬匠, 持馬匠 (7)
		태복시	大鞾匠, 鞍褥匠, 皮匠 (3)
장야서	銀匠, 和匠, 白銅匠, 赤銅匠, 鏡匠, 皮帶匠, 金箔匠, 生鐵匠 (20)	대악관현방	唐舞業, 唱詞業, 笙業師, 唐舞師校尉, 御前兩部都廳, 琵琶業師, 閤門使同正, 杖鼓業師, 唐笛業師, 鄕琵琶業師, 唐琵琶業師, 方響業師, 篳篥業師, 歌舞拍業師, 中笒業師 (13)
도교서	木業, 雕刻匠, 石匠, 粧覆匠, 泥匠 (7)		
액정국	錦匠, 羅匠, 綾匠 (4)		
내궁 전고	角弓匠, 箭匠, 箭頭匠, 弓袋匠 (4)		

자기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이 300일 이상 역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였고, 녹봉을 받을 자격에 충족되지 않았다. 한편, 1097년 공장안에 등록된 정부(丁夫)와 잡장(雜匠)은 관청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로 각종 역사나 공물 생산에 동원되었던 정황이 확인된다.[58] 시기 차는 있으나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순화명 청자를 제작한 장인들 또한 공장안에 등록되어 의례용 제기기 제작과 관련된 임시아문 소속 장인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59]

성종은 송 황실에 왕위계승 관련 조서를 보냈고, 이듬해인 982년 송 황실로부터 사대를 갖춰 신하의 예법을 잘 이행하여 왔음을 인정받는 화답을 전해 받았다.[60] 또한 예제 관련 도서와 그림을 받아들였고, 송 예제를 모범으로 유교 이념을 정립시켜 태묘를 비롯해 국자감을 설치하는 등 왕조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61] 상술했듯이, 유교식 조상 숭배의례를 정비하려 988년 태묘를 5묘 체제로 정하였고, 989년 4월부터 시작된 태묘 건립은 992년 11월에 마무리되었다.[62] 성종은 첫 태묘 의례를 치룬 뒤 얼마 지나지 않은 993년 3월 교서를 내려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을 효에서 찾았고, 혜종・정종・광종・경종의 신주를 하나의 묘당에 봉안토록 함으로써 태묘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63] 태묘는 국가 오례에서 가장 중

57)『慵齋叢話』卷10, “(…) 每歲遣司甕院官. 分左右邊. 各率書吏. 從春至秋. 監造而輸納于御府. 錄其功勞. 而等第之. 優者賜物. (…)”

58)『高麗史』卷84 志38 刑法1 職制, “(肅宗)二年, 判, ‘被差充丁夫 雜匠, 稽留不赴, 一日, 笞四十, 四日, 五十, 七日, 杖六十, 十日, 八十, 十三日, 九十, 十九日, 一百, 二十三日, 徒一年, 將領主司, 各加一等.’”; 이정신, 「고려시대 금속수공업과 匠人」, 『한국중세고고학』 5, 한국중세고고학회, 2019, 111-112면.

59) 김세린, 「高麗時代 金屬象嵌技法 硏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1, 48-49면 ; 서성호, 앞의 글, 24-25면.

60)『高麗史』卷3, 世家3 成宗1年(982), “(전략) 越重溟而奉表, 望雙闕以傾心, 無虧事大之儀, 頗得爲臣之禮. 更宜善修刑政, 恭守憲章, 勿忘兢愼之規, 永保延長之慶, 竚期命使, 別議加恩. 瞻注所深, 寢興無舍.”

61)『高麗史節要』卷2, 成宗11年(992) 12月, “下敎, 立國子監, 給田莊.”; 김철웅,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國史館論叢』 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 3면 ; 홍영의, 「고려 궁궐내 경령전의 구조와 운용」, 『한국학논총』 3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2, 80면.

62)『高麗史』卷3, 世家3 成宗7年(988) 12月, “是歲, 始定五廟.”; 『高麗史』卷3, 世家3 成宗8年(989) 4月 15日, “乙丑 始營太廟.”; 『高麗史』卷3, 世家3 成宗8年(989) 4月 23日, “癸酉 王詣大廟, 率百官輸材.”; 『高麗史』卷3, 世家3 成宗11年(992) 12月, “十二月 太廟成.”; 『高麗史』卷61, 志15 禮3 吉禮 大祀 諸陵 成宗11年(992) 11月, “十一年十一月, 太廟成, 命儒臣, 議定昭穆位次, 及禘祫儀, 遂行祫禮.”

63)『高麗史』卷3, 世家3 成宗12年(993) 3月 7日, “敎曰 朕聞 王者 父天母地兄日姊月 因時制禮 追孝敬親

요한 위상을 가진 길례 중 하나로써 품격과 위계에 맞는 의례를 통해 예의 본질과 정신을 구현하고, 왕권을 재확인시켜 권위와 권력을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64] 즉, 순화명 청자는 태묘 의례용 제기의 제작과 사용을 주관한 고려 왕실, 나아가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송 예제를 적극 받아들인 성종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65] 또한 순화명 청자는 태묘 의례용 제기의 제작처로 지정된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장인들의 우수한 공력으로 제작된 결과물이자, 규격화된 명문을 표기하여 사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했던 대상이다.

4. 순화명 청자의 제작 중단과 전개

태묘 의례는 992년 12월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거란과의 전쟁을 거쳐 994년 4월에 두 번째 의례가 진행되었다. 태묘 의례의 시행은 성종의 승하에 따른 998년을 비롯해 1002년, 1010년, 1014년 등 해당년도 4월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다.[66] 태묘 의례에서 제기는 관리와 보관을 통해 재차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파손과 분실을 대비하기 위해 제작도 병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순화명 청자는 992-993년 이후 제작된 사례가 없고, 배천 원산리 가마 역시 운영을 중단하였다. 순화명 청자두형제기가 배천 원산리 2호 가마 최후 바닥층에서 확인된 사실은 배천 원산리 가마의 폐요 시점이 993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배천 원산리 가마의 폐요 시점은 늦어도 11세기 이전일 것이며, 거란의 침입으로 배천 일대가 직접적인 인적·물리적 피해를 입은 시기는 거란군이 서경의 사찰에

天子七廟 諸侯五廟 祖功宗德 左昭右穆 大孝感于神明 至德動乎天地 (…) 兄弟一行, 禮文斯在, 宜奉惠·定·光·景四主, 通爲一廟."

64) 김보광, 앞의 글, 2019, 32면 ;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籩·豆의 사용」, 『동방학지』 15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177면.

65) 김아네스, 앞의 글, 22면, 27면 ; 이민정, 앞의 글, 16면 ; 현종민, 앞의 글, 8-9면.

66) 『高麗史』 卷3, 世家3 穆宗1年(998) 4月 24日, "夏四月 壬子 謁太廟, 祔成宗, (…)" ; 『高麗史』 卷3, 世家3 穆宗5年(1002) 4月 7日, "親享太廟, 加上先王·先后徽號." ;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元年(1010) 4月 4日, "夏四月 癸丑 親祀太廟." ;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5年(1014) 4月 21日, "丙子 親禘于齋坊, 始以穆宗祔, 赦流罪以下."

불을 지른 1010년 12월경과 개경을 점령하여 태묘, 궁궐, 민가를 화염에 휩싸이게 한 1011년 1월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67] 다시 말해 배천 원산리 일대는 거란의 침입에 따라 가마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기보다 거란의 침입 이전에 배천 원산리 가마 운영 자체가 이미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배천 원산리 가마를 비롯한 중서부 일대 전축요에 대한 연구는 운영주체 및 성격에 대한 주제가 주된 쟁점 중 하나를 차지하고, 연구자별로 왕실・관청 소속의 관요 혹은 호족의 운영주도로 공물을 납부하는 사요(私窯)로 파악해왔다. 최근 연구에서 고려 왕실재정기구인 '寶泉' 산하에서 관리와 유통이 용이한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형 전축요가 설치 운영되어 궁정수공업체제하에서 자기 제작을 시작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68] 초기 청자연구에 있어 한층 진일보한 성과가 분명하나, 현재 남서부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는 진안 도통리, 고창 반암리 일대 대형 전축요의 성격에 대한 혜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연구의 논지는 서해안 전역과 영남 일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대형 전축요의 성격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는데 재고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나아가 보천 산하에서 특정 가마가 운영되어 왕실이 필요로 하는 자기를 전담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염두하게 하며, 이러한 가설대로라면 명문 표기와 제작공정을 통해 다른 가마와 차별화되었던 배천 원산리 가마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태조가 전조(前朝) 제도를 따라 설치한 물장성(物藏省)은 장인[工技]과 진귀한 물건의 보관[寶藏]을 담당하였고, 960년 보천으로 개칭되고 이후 소부감(小府監)으로 재편되어 업무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69] 보천이 소부감으로 재편된 시점은 995년 성종이 어사도성(御事都省)과 6관(官)의 명칭을 중심으로 바로잡았고, 소부감으로 재편된 이후 문종이 관제를 정하였다는 사실에

67)『高麗史』卷4, 世家4 顯宗元年(1010) 12月 9日, "丹兵至西京, 焚中興寺塔."; 『高麗史』卷4, 世家4 顯宗2年(1011) 1月 1日, "辛亥二年 春正月 乙亥朔 契丹主入京城, 焚燒太廟·宮闕·民屋皆盡. (…)"

68) 한광휘, 「高麗 前期 磁器 生産體系 硏究」,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18, 74-75면.

69)『高麗史』卷76, 志30 百官1 小府寺, "小府寺掌工技寶藏. 太祖仍泰封之制, 置物藏省, 有令・卿, 光宗十一年, 改爲寶泉, 後改小府監, 有監·少監・丞・注簿. (…)"

서 995년으로 추정되고 있다.[70] 소부감으로의 재편 시점이 보천 산하에서 운영되던 배천 원산리 가마의 폐요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운영 체제 및 담당업무의 변화에 배천 원산리 가마의 폐요 원인을 찾기도 한다.[71] 그러나 시흥 방산동 가마는 보천 산하에서 운영된 가마로 보기 어려움에도 배천 원산리 가마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운영을 중단하였다. 배천 원산리 가마와 시흥 방산동 가마의 길이 40m에 달하는 규모와 축요 방식은 용인 서리와 고창 용계리, 진안 도통리, 고창 반암리 일대 초기가마에서도 확인되지만 이들 가마는 토축요로 가마 구조를 전환하며 요업을 한동안 지속해나갔다.〈도 9-11〉

전축요의 추이를 고려한다면, 배천 원산리 가마가 운영을 중단한 가장 큰 원인은 요업기술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서 고려는 994년 거란과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하여 거란과의 친교관계를 유지하였다. 943년 작성된 『訓要十條』에서 거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규제는 발해 멸망에 따른 민족적 정서가 반영되었다기보다 10세기 중반 이미 거란의 문물 및 제도가 고려에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72] 실제로 거란인 포로의 10%에 달하는 장인 중에서 정교한 솜씨를 가진 이는 왕부(王府)에 머물렀다고 전한다.[73] 이에 거란이 위치한 중국 북방자기가 고려에 미친 영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11세기 이후 고려자기에 보이는 초벌・재벌, 내화토받침, 청자・백자의 동반제작, 해무리굽완, 상감기법, 철화기법, 문양 소재 등에서 중국 북방자기의 영향이 거론된 바 있다.[74] 중국 남부지역

---

70)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14年(995) 5月 13日, "唐虞之制, 周漢之儀, 皆釐百辟之名, 永奉一人之慶. 今以諸官司, 事體難遵於禮典, 額名頗有所權稱. 考厥典常, 分其可否, 悉除假號, 克示通規." ; 『高麗史』 卷76, 志30 百官1 小府寺, "(…) 改爲寶泉, 後改小府監, 有監·少監·丞·注簿. 文宗定, 判事秩從三品, 監一人正四品, 少監一人從四品, 丞二人從六品, 注簿二人從七品. (…)" ; 김대식, 『高麗前期 中央官制의 成立과 六典制의 影響』,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104면, 119면.

71) 한광휘, 앞의 글, 76면.

72) 장남원, 「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 『미술사학』 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174면.

73)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9, 民庶 工技, "(…) 亦聞契丹降虜數萬人其工伎十有一擇其精巧者留於王府(…)"

74) 김윤정, 「12세기 고려청자에 보이는 宋・金代 定窯 자기의 영향과 의미」, 『야외고고학』 29, 한국문화유산협회, 2017, 49-64면 ; 방병선, 「오대・북송 요주요 청자 제작기술의 혁신과 전파」, 『

인 절강성 월주요를 따른 대형 전축요는 요업을 운영하기에 많은 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규모와 구조였다.[75] 반면, 북방의 섬서성 요주요, 하북성 형요·정요·자주요는 폐갑발과 흙을 사용하여 축조되었고, 말발굽 형태의 평면 구조인 단실요[馬蹄窯]로 축요재 및 구조와 규모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76]〈도 12-13〉 한반도에 처음으로 자기를 제작한 가마는 월주요의 성격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이후 가마를 재차 수리하고 사용규모를 축소해 요업을 이어나갔으나 요업의 운영상 효율적인 구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존 대형 전축요를 폐요시키거나 보다 축요법이 단순해지고 규모가 축소된 토축요로 전환시켜 요업을 이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 9〉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전체 길이 38.9m(→22m) 경사도 10° 번조실 너비 약1.8m(→0.9m) 북한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도 10〉 시흥 방산동 요지 전체 길이 39.1m(→35.8m) 사도 15° 번조실 너비 약2.2m(→0.9m) 해강도자미술관



〈도 11〉 진안 도통리 요지 전체 길이 43m 경사도 12° 벽돌가마→갑발+점토가마 국립전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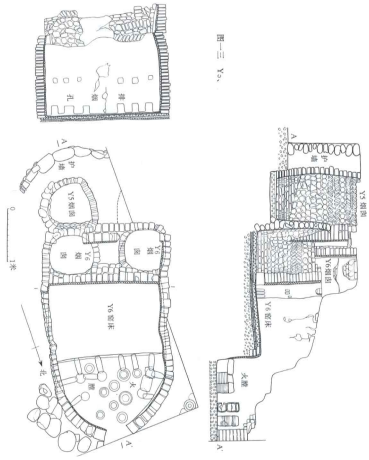
강좌미술사』 3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322-325면 ; 장남원, 앞의 글, 2009, 177-194면.

75) 이희관, 「唐宋時期 越窯 가마의 구조와 그 특징—고려시기 청자 가마 구조의 파악을 위한 전제」, 『미술자료』 92, 국립중앙박물관, 2017, 135면 ; 項坤鵬, 「당송시기(唐宋時期) 절강지역(浙江地域) 청자요의 구조와 변천에 대한 고찰」, 『야외고고학』 20, 한국문화유산협회, 2014, 86-87면.

76) 방병선, 앞의 글, 315-316면 ; 北京大学考古学系 외, 『观台磁州窑址』, 文物出版社, 1997, 30면 ; 北京藝術博物館, 『中國邢窯』, 中國華僑出版社, 2012, 234면.



〈도 12〉 형요, 하북성 기촌, 오대
북경예술박물관



〈도 13〉 관태 자주요, 하북성, 당말-원대

태묘 의례용 자기제기를 전담 제작한 배천 원산리 가마는 990년대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는 가마 운영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적하였다. 다만, 용인 서리나 여주 중암리, 고창 용계리 등의 경우처럼 가마의 성격을 토축요로 전환하여 운영을 이어갈 선택지가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배천 원산리 가마가 운영을 중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란은 개경을 도륙하였고, 배천 일대 역시 극심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고려 왕실은 재정의 악화로 별사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소속 장인들은 지방 각지의 영조(營造)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77] 더욱이 공장안이 전소되어 장인들의 활동에 제약이 줄어들었고, 한편으로 왕실용 기물 제작을 위한 장인의 인력 동원은 한동안 난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있다.[78] 즉, 배천 원산리 가마는 992-993년 보천 산하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아문을 설치하고 장인들을 차출하여 태묘 의례용 청자제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영을 중단한 이후 1010년 재차 발발한 거란의 침입에 따른 피

77) 홍대한, 앞의 글, 217면 (각주 8).
78) 「崔士威墓誌銘」, "庚戌年兵難仍 以百工案牘皆以燒亡 返正後公獨奏請與主典 五年之間 中外工匠姓名成籍各司分附也"

해로 인해 고려 왕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인력의 확보 및 가마 구조의 전환을 통한 재건[改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려 왕실은 1011년 소실된 태묘를 대신해 각 능에서 제향을 지내도록 조치를 하고, 1014년 임시로 만든 재방(齋坊)에 신주를 봉안하도록 하였다.[79] 1027년 2월 17일 태묘의 수리가 마무리되어 신주를 모셨고, 4월 12일 태묘 의례를 진행하였다.[80]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029년 현종은 제기의 종류를 늘릴 것을 논하지만 예부(禮部)의 건의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81] 주목할 점은 당시 제기의 부족을 지적하거나 제기의 추가 제작을 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기의 종류를 늘릴 것을 논하였다는 사실이다. 1011년 태묘와 궁궐 그리고 민가까지 개경 일대는 전소되거나 파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태묘 의례용 제기는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태묘의 건립만큼이나 의례용 제기의 확보가 필요했을 것이며, 제기가 별도 제작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즉, 1029년의 논의는 태묘 의례용 제기의 수량 확보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경과 근거리에 위치한 용인 서리 상반마을, 여주 중암리 일대에서 순화명 청자와 확연히 다른 성격의 백자제기가 제작되었고, 이는 공물 납부의 방식으로 바쳐져 순화명 청자를 대체할 태묘 의례용 제기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11세기 태묘 의례용 자기제기의 원활한 수급은 이전과 다르게 제기를 제작하고 수급 받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제기와 관련한 업무를 소부감이 아닌 제기도감(祭器都監)에서 전담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기도감은 광종-의종연간(961-1170) 도감의 설치와 기록빈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총 6차례 등장하고, 늦어도 1076년에는 설치·운영되어 관제가 정해졌다.[82] 다만, 도감과 관련한 가장 이른 기록이 961년이라는 점에서 1076년

79)『高麗史』卷61, 志15 禮3 吉禮大祀 諸陵, 顯宗2年(1011), "太廟災 每值時祭各祭於本陵."; 『高麗史』卷61, 志15 禮3 吉禮大祀 諸陵, 顯宗2年(1011), "始修齋坊 權安神主 親禘."

80)『高麗史』卷5, 世家5 顯宗18年(1027) 2月 17日, "修太廟, 復安神主."; 『高麗史』卷5, 世家5 顯宗18年(1027) 4月 12日, "謁大廟, 加上先王·先后尊號. (…)"

81)『高麗史』卷5, 世家5 顯宗20年(1029) 4月 27日, "王議增太廟籩豆, 禮部據王制, 豊年不奢, 凶年不儉之義, 執不可乃止."

82)『高麗史』卷80, 志34 食貨3 祿俸, 文宗30年(1076), "權務官祿文宗三十年定. (…) 祭器·鹵簿都監·

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83] 실제로 고려시대 도감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시점은 현종연간(1009-1031)으로 도감의 업무가 6부(部)와 각사(各司)에서 처리할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84] 제기도감 또한 소부감과 업무상 중복되었으나, 제기도감과 소부감의 관제가 각각 '使(三品)-副使(五品)-判官(丙科權務)/吏屬(記事-記官-書者)', '判事(從三品)-監(正四品)-少監(從四品)-丞(從六品)-注簿(從七品)/吏屬(監史-記官-筭士)'로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부감의 업무를 보완하는 기능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85]

태묘 의례를 위해 제기도감이 설치된 기록, 제기도감의 명확한 설치시점과 세부 업무내역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부감의 전신인 보천 산하에서 배천 원산리 가마가 운영되어 태묘 의례용 자기제기가 제작되었던 양상과 확연히 다른 성격의 자기제기가 11세기 이후 용인 서리 상반마을 및 여주 중암리 일대에서 제작되었고, 태묘 의례용 제기의 수급 또한 원활히 이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태묘 의례용 자기제기 제작과 수급이 이전과 다르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었고, 나아가 11세기 소부감에서의 제기 제작관련 업무가 제기도감으로 이전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순화명 청자는 992-993년 태묘 의례용으로 보천의 관할 하에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전담 제작된 제기였다. 배천 원산리 가마가 운영을 중단한 이후 11세기부터 용인 서리 상반마을 및 여주 중암리 일대를 중심으로 별도 표기된 명문 없이 보다 다양한 기종의 백자제기가 제작되어 공물 납부방식으로 수급되었으며, 이를 제기도감이 총괄하여 태묘 의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東・西村場判官, (…)" ; 나영훈, 「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22면.

83) 『高麗史節要』 卷2, 光宗12年(961), "是歲, 置修營宮闕都監, 移御正匡王育第."

84) 이정훈, 『高麗前期 三省六部制와 各司의 運營』,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243-247면.

85) 『高麗史』 卷77 志 卷30 百官1 小府寺, "(…) 文宗定, 判事秩從三品, 監一人正四品, 少監一人從四品, 丞二人從六品, 注簿二人從七品. (…) 吏屬, 文宗置監史六人, 記官四人, 筭士一人." ; 『高麗史』 卷77 志 卷31 百官2 祭器都監, "文宗定, 使二人, 三品兼之, 副使, 五品兼之, 判官六人, 丙科權務. 吏屬, 記事二人, 記官二人, 書者二人."

5. 결론

고려시대 순화명 청자는 992-993년 태묘 의례를 위해 제작된 제기이다. 983년 각종 그림과 서적으로 전해진 중국 예서와 제기도는 고려시대 제사 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988년 성종은 태묘를 5묘 체제로 정하고, 989년 4월부터 태묘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992년 11월에 마무리하였다. 성종에게 태묘는 국가근본인 효가 구현되는 공간이었고, 태묘의 건립과 공식적인 제사를 통해 예제를 정립하고 왕실의 위상을 세워 왕위의 정통성을 상징하고자 하였다. 순화명 청자는 이러한 성종의 의지를 담아 태묘 의례용 제기의 전담 제작처로 지정된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 장인들의 우수한 제작공력으로 제작된 결과물이자, 북송『삼례도』의 태준, 두를 견본으로 하여 상부-중부-하부가 개별 제작・조립되거나 '시기-사용처-용도-제작자'의 명문을 개체별로 모두 표기할 만큼 규격화된 공정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제작방식이 적용된 대상이었다.

배천 원산리 일대는 태묘가 자리한 개경의 지근거리에 위치하여 도기가마가 운영되고 있었고, 성종연간 공장안의 작성과 기존 향호들의 통제력 상실로 인해 가마의 운영과 실무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왕실의 의도가 자기 제작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960년 물장성에서 개칭된 보천은 장인과 진귀한 물건의 보관을 담당하였고, 배천 원산리 가마를 산하에 두어 필요시 임시아문을 설치하고 장인을 차출하여 태묘 의례용 청자제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순화명 청자는 993년 이후 제작된 사례가 없고, 배천 원산리 가마 역시 운영을 중단하였다. 배천 원산리 가마는 중국 절강성 월주요의 성격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이후 3차례의 수리를 거쳐 규모를 대폭 축소했으나 요업의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운영을 중단한 이후 토축요로 전환하여 운영을 이어가기에 1010년 재차 발발한 거란의 침입에 따른 피해로 고려 왕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인력의 확보 및 가마 구조의 전환을 통한 재건도 불가능하였다.

고려 왕실은 1011년 소실된 태묘를 대신할 임시 조처를 취하였고, 1027

년 태묘의 수리를 마치고 태묘 의례를 진행하였다. 1029년 태묘 의례용 제기의 수량 확보가 차질 없이 이행된 배경에는 제기도감의 관할 하에 공물의 형태로 자기제기가 수급되었기에 가능하였다. 11세기 임시관청으로 설치된 제기도감은 보천의 후신인 소부감의 업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고, 그중 제기의 제작 관련 업무를 일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992-993년 태묘 의례를 위해 배천 원산리 가마에서는 보천의 관할 하에 순화명 청자가 전담 제작되었고, 11세기부터 배천 원산리 가마를 대신하여 용인 서리 상반마을 및 여주 중암리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종의 백자제기가 제작되었으며, 이는 제기도감의 총괄하에 공물 납부방식으로 수급되어 태묘 의례용 제기로 차질 없이 사용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배천 원산리 요지에서 출토된 순화명 청자의 성격, 제작배경과 의미, 위계를 살피고, 11세기 이후 태묘 의례용 자기제기의 추이를 제작 및 수급방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논하였다. 다만,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순화명 청자가 출토된 황해도 배천 일대를 비롯한 북한측 자료 접근의 어려움과 고려 초 사료 및 금속제기 실물자료가 희소하다는 한계가 있어 논지를 뒷받침할만한 근거에 부족함이 있었다. 한편, 1056년 고려 왕실은 오래되고 파손된 태묘 제기 '변(籩)·비(篚)·현의(玄衣)·적석(赤舃)'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1116년 태묘 의례에 옥으로 만든 제기를 사용하였다.[86] 1117년 북송은 『삼례도』와 다른 고동기형 제기를 고려에 전하였고, 해당 제기는 북송 수내사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로 추정되었다.[87] 순화명 청자를 비롯하여 북송 『삼례도』의 제기를 견본으로 삼은 고려 초 자기제기는 의례 행위와 수납·관리가 지속되면서 파손과 분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자기제기의 사용지속 기간과 폐기방식, 12세기 전반 새롭게 유입된 고동기형 청자제기에 대한 고려 왕실의 인식과 고려 자기제기의 성격에 미친 영향 및 자기제기의 추이 등은 순화명 청자 연구의 연결선상

86) 『高麗史節要』 卷4, 文宗10年(1056) 1月, "春正月. 禮官言, "大廟祭器年久破缺, 不堪陳用. 曲禮曰, '祭服弊, 則焚之, 祭器弊, 則埋之.' 其邊篚玄衣赤舃, 命御史臺焚埋." 從之." ; 『高麗史節要』 卷8, 睿宗11年(1116) 10月, "親享于大廟, 薦大晟樂及西都所得瑞玉祭器, 幷奏新製九室登歌."

87) 김효진, 앞의 글, 2014, 8-9면.

에서 다뤄져야할 연구대상이다. 추후 진행될 발굴조사 및 폭넓은 문헌조사를 통해 순화명 청자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나아가 산재한 고려시대 자기제기 관련 연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大唐開元禮』, 『白川趙氏世譜』, 『宣和奉使高麗圖經』
『續資治通鑑長編』, 『新定三禮圖』, 『慵齋叢話』, 『朝鮮王朝實錄』, 『崔士威墓誌銘』

강경숙, 『韓國陶磁史』, 예경, 2012.
경기도박물관, 『京畿道佛蹟資料集』, 경기도박물관, 1999.
_____, 『奉業寺』, 경기도박물관・안성시, 2003.
경기도박물관 외,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경기도박물관・여주군, 2004.
경기문화재연구원, 『龍仁西里上盤高麗白磁窯址』, 경기문화재연구원・용인시・용인문화원, 2016.
_____, 『華城 花山洞 遺蹟(본문2)』,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고고연구 해제집1(1986-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국립전주박물관 외, 『진안 도통리 중평 초기청자요지Ⅲ』, 국립전주박물관・군산대 박물관・진안군, 2019.
기호문화재연구원, 『龍仁 前垈里・留雲里 遺蹟』,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김대식, 『高麗前期 中央官制의 成立과 六典制의 影響』,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보광,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113, 한국사학회, 2014, 52-55면.
_____, 「고려전기 閣門의 역할과 국가의례상 의미」, 『동방학지』 18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9, 32면, 52-54면.
김봉두, 「고려 성종대 政治支配勢力의 지방통치에 대한 認識과 지방통제책」, 『전통문화연구』 5, 조선대 전통문화연구소, 1997, 62-63면.
김세린, 「高麗時代 金屬象嵌技法 硏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1, 48-49면.
김아네스, 「고려 전기 태묘의 禘祫 親享과 그 의미」, 『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22-24면, 27면.
김영진, 『도자기 가마터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2.
_____, 『조선도자사연구(삼국-고려)』, 사회과학출판사, 1995.
김우성, 「고려 전기 태묘 제례의 주기진설과 제주사용」,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2017, 16면, 18면, 21면.
김윤정, 「12세기 고려청자에 보이는 宋・金代 定窯 자기의 영향과 의미」, 『야외고고학』 29, 한국문화유산협회, 2017, 49-64면.
김창겸, 「高麗 太祖代 姓貫 賜與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3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50-53면.
김철웅,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國史館論叢』 106, 국사편찬위원회, 2005, 3면.
김효진, 「용인 서리 상반요지 출토 고려백자 제기의 특징과 제작 시기」, 『미술사학연구』 282, 한국미술사학회, 2014, 7-10면, 20면, 26-27면.
_____, 「龍仁 西里 窯址 出土 高麗白磁 祭器 硏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0, 28-30면.
나영훈, 『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보물 토기・도자기』, 문화재청, 2015.

문화재청 외,『한국의 사지 현황조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2014上』,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박봉주,「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籩・豆의 사용」,『동방학지』15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177면.
방병선,「오대・북송 요주요 청자 제작기술의 혁신과 전파」,『강좌미술사』3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315-316면, 322-325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韓國考古學全書 49 (中世編 26) 고구려와 고려 및 리조 도자기가마터와 유물』, 진인진, 2009.
서성호,『高麗前期 手工業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오영인,「高麗 塼築窯 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9, 92-94면.
이미지,「북한 로동신문에 보도된 고려시대 관련 기사의 현황과 주요 내용」,『역사와 실학』70, 역사실학회, 2019, 142-143면.
이민정,「高麗 初期 太廟 祭禮服飾 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16면, 22-23면.
이정신,「고려시대 금속수공업과 匠人」,『한국중세고고학』5, 한국중세고고학회, 2019, 111-112면.
이정훈,『高麗前期 三省六部制와 各司의 運營』,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이종민,「나말여초 청자요업의 개시 여건과 고고학적 산물의 검토-塼築窯와 出土品을 중심으로」,『한국중세고고학』1, 한국중세고고학회, 2017, 72면.
_____,「南部地域 初期靑磁와 系統과 特徵」,『미술사연구』16, 미술사연구회, 2002, 37면.
_____,「韓國 初期靑磁 生産窯址의 分布와 性格」,『역사와 담론』63, 호서사학회, 2012, 166-167면.
이찬욱,「韓國의 歸化姓氏와 多文化」,『다문화콘텐츠연구』17,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4, 262면.
이희관,「唐宋時期 越窯가마의 구조와 그 특징—고려시기 청자 가마 구조의 파악을 위한 전제」,『미술자료』92, 국립중앙박물관, 2017, 135면.
장남원,「고려시대 경기지역 窯業의 성격」,『고문화』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4, 96-98면.
_____,「10-12세기 고려와 遼・金도자의 교류」,『미술사학』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174면, 177-194면.
조선문화유산연구원,「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집」,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1, 18면.
조욱진,「고려전기 태묘의 구성과 묘제의 변화」,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21, 9-10면.
차순철,「「官」字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경주문화연구』5,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2002, 124-129면.
하은미,「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硏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16-19면.
한광휘,「高麗 前期 磁器 生産體系 硏究」,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18, 74-76면.
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 문학산 제사유적』, 한국고고인류연구소・인천광역시 남구, 2018.
한신대 박물관,『水原 古邑城』, 한신대 박물관, 2000.
한정수,「고려시대 태조 추모의의 양상과 숭배」,『사학연구』107, 한국사학회, 2012, 16면.
한정희 외,『동양미술사』, 미진사, 2007.

項坤鵬,「당송시기(唐宋時期) 절강지역(浙江地域) 청자요의 구조와 변천에 대한 고찰」,『야외고고학』20, 한국문화유산협회, 2014, 86-87면.
해강도자미술관,『방산대요』, 경기도 시흥시・해강도자미술관, 2001, 113면, 164면, 205-206면, 208면, 211면, 224-225면.
현종민,「고려 전기 태묘와 그 정치적 의미」,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20, 6면, 8-9면.
호암미술관,『龍仁西里 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Ⅰ』, 호암미술관, 1987.
_____,『龍仁 西里 高麗白磁窯 發掘報告書Ⅱ』, 호암미술관, 2003.
홍대한,「고려시대 공장(工匠) 운영과 성격 고찰-조탑 공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13-1,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217-219면.
홍영의,「고려 궁궐내 경령전의 구조와 운용」,『한국학논총』3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2, 80면.
_____,「고려 금속제 佛具類 銘文에 보이는 京・外 匠人의 제작활동」,『한국중세사연구』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275면, 278-279면.
北京大学考古学系 외,『观台磁州窑址』, 文物出版社, 1997.
北京藝術博物館,『中國邢窯』, 中國華僑出版社, 2012.
小山富士夫,「高麗陶磁序說」,『世界陶磁全集』13, 河出書房, 1956, 220-221면.
南秀雄,「圓山里遺跡と開城周邊の青磁資料」,『東洋陶磁』, 東洋陶磁學會, 1992-94, 105-120면.
張文昌,「宋代國家禮典之修撰」,『制禮以教天下: 唐宋禮書與國家社會』,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2.
陳芳妹,「宋古器物學的興起與宋仿古銅器」,『美術史研究集刊』10, 國立臺灣大學藝術史研究所, 2001.

【Abstract】

Re-examination of the Celadon with the Inscription of 'Soonhwa (淳化)' in the early Goryeo dynasty

Oh, Young-In*

This study sets out to investigate the formative Origin, Production Background, Characteristics, Hierarchy of the Celadon with the Inscription of 'Soonhwa(淳化)' excavated in Hwanghae-do (黃海道) Baechun (白川) Wonsan-ri (圓山里) kiln, to estimate Production and Supply of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ceremonial earthenware in the 11th century. The ritual space of the Goryeo Dynasty was built on the basis of Yeseo (禮書) and Jaegido (祭器圖) imported from Song dynasty. Sungjong(成宗) set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as Five Ancestral Temple in 988, started building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in 989, completed construction in 992. Sungjong (成宗) took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as space to include filial piety, the prop of the country, and intended to reveal Royal authority and authenticity through Ritual in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With intention of Sungjong(成宗), the Celadon with the Inscription of 'Soonhwa (淳化)' was produced using Taejoon (太尊) and Doo (豆) of the northern Song dynasty's Samryedo (三禮圖) as a sample for Ritual in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in 992-993, produced systematically to put together the fabricated parts and to write the inscription 'time-place-use-manufacturer'.

Bochun (寶泉) managed master craftsmans and treasure warehouse, the Celadon with the Inscription of 'Soonhwa (淳化)' made in Baechun (白川) Wonsan-ri (圓山里) kiln until 993. Out of operation in Baechun (白川) Wonsan-ri (圓山里) kiln, it was rooted in problem maintaining kiln. In the end, it stopped altogether ending up with less Royal Family's support and the insurance of manpower for regeneration by Kitan's invasion since 1010.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had been burnt down in 1011, was fixed and opened up Ritual in 1027. According to plan, Jaegidogam (儀禮都監) might procure by tribute Ancestral utensil (儀禮器) of pottery for Ritual in Imperial Ancestral Temple

* Cultural Heritage Connoisseur Office, Connoisseur of Cultural Heritage.

(太廟) in 1029. After the 11th century, the Celadon with the Inscription of 'Soonhwa (淳化)' delegated a role of Ancestral utensil (儀禮器) for Ritual in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to white porcelain produced in Yongin (龍仁) Seo-ri (西里) and Yeoju (驪州) Joongam-ri (中巖里) kilns.

Keywords: Soonhwa (淳化), Imperial Ancestral Temple (太廟), Ancestral utensil (儀禮器), Samryedo (三禮圖), Jaegido (祭器圖).

접수일: 2021.09.29. ‖ 심사일: 2021.10.08. ‖ 게재확정일: 2021.11.17.